

정부發 광역통합에 특별자치도 ‘뒤숭숭’

정부, 대전·충남-광주·전남-부산·경남 통합 ‘속도’
제주와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 ‘예의주시’
특별도 “뒷전으로 밀릴라”... 연대 강화 목소리 술술

이재명 정부에서 불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통합 바람을 지켜보는 특별자치도의 속내가 편지 않은 분위기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3특(3개 특별자치도)로 묶인 제주와 강원, 전북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통합 시·도에 대해 교부세 추가 배분 및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과감한 인센티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도권 소재 약 350개 공공기관을 2차 이전 검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로드맵 및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가 앞장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역 여론 조성 차원에서 공공기관 대거 이전과 같은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다.

통합이 가장 급물살을 타고 있는 광주·전남의 경우 이번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 제정 지원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항구적인 재정 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전남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에서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는 “통합 이후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특별교부금 지원과 같은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법적 권리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특 중 한 곳인 전북특별자치도는 비상이 걸렸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인접 광역권의 행정통합 추진으로 전북이 또다시 국가 전략의 변두리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일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신년 인사회에서 “충남과 전남이 각각 하나의 덩어리가 되면, 그 사이에 낀 전북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미뤄져왔던 전주·완주 통합을 더이상 관망할 수 없다며 전북 생존 전략의 출발점으로 전주·완주 통합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북과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별자치도만의 체계화된 연대를 통해 중앙정부 지원 정책에서 기존 특별자치도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에 비해 제주도 정치권은 타 지역 행정통합에 대해 다소 뒷짐진 모습이다. 하지만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이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부미현기자

해경, 제주해안 발견 마약류 유입경로 확인 “지난해 7월 대만 해상에서 대량 발견 해류 타고 제주해안 유입 가능성 높아”

속보=지난해 제주 해안에서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케타민)가 대만에서 유실돼 표류한 마약류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제주 해안에서 17회에 걸쳐 잇따라 발견된 마약류 ‘케타민’이 지난해 7월 대만 서부 해상에서 발견된 대규모 마약 유실 사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순, 녹색과 은색 차(茶) 포장지로 위장된 케타민 약 140kg이 대만 서부 해역에서 표류 중인 상태로 대만 당국에 의해 발견됐다.

현재 해당 마약류를 유통하려 한 범죄조직을 특정할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양국은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케타민의 포장 형태와 종류 등을 감안해 해당 마약류가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후 해류

를 타고 제주해안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9월 서귀포시 성산을 신양리 해안에서 마대에 담긴 케타민 20kg이 최초 발견되자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CCTV 녹화 영상과 제주 주변 통항 선박 항적 분석 등을 실시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국내 범죄와의 연관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이후 해경은 민·관·군 합동수색을 벌여 현재까지 마약 34kg을 수거했고, 지난해 12월 9일 우도 해안에서 최종 발견된 이후 현재까지 제주 해안에서 추가로 발견되거나 도내로 유통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마약류 유입 경로를 밝히기 위해 국내는 물론 대만 등 해외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마약 없는 청정 제주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상 감시와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세계적 멸종위기종 시베리아흰두루미의 자태 1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철새도래지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시베리아흰두루미 3마리가 찾아와 휴식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도, 중소건설업체 240억 규모 특별신용보증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신용보증 지원사

하면 재단 측이 240억원 규모의 보증 재원을 조성해 중소건설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게 보증을 서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중소건설업체는 시중 이율보다 4~6% 저렴한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 1곳 당 융자액은 최대 1억원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2026학년도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첫 미달’

도교육청 추가 모집 결정
8개교에 16명 추가 선발
14~15일 원서 접수 진행

2026학년도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선발 전형에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모집 정원이 미달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열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미달 인원 16명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올해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 8개교 모집 정원은 2880명

이었으나, 실제 지원자는 2864명에 그쳐 16명이 미달됐다. 제주시역은 2019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연합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내신 성적 100%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 왔으며, 이 제도 도입 이후 평준화 일반고에서 미충원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가 모집 인원은 미달 인원과 동일한 16명이다. 공고는 12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합격자와 배정 학교는 16일 오후 2시 발표될 예정이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이호해수욕장 인근 폐쇄 화장실 방치... 4면 / 도, 제주4·3 역사왜곡 현수막 강제 철거... 5면

코팅필름을?

기과?

장수필름 가격에!

무적이 오래 가는
코팅스트롱

새미그룹을 검색해보세요

- 오래가는 무적성능!
- 6중 구조, 뛰어난 내구성!
- 0.15, 0.10, 0.06mm

구매 문의

1877-1447